

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오늘 표결...여야 충돌

펠로시 의장, 민주당 총동원령
WP "탄핵 찬성 의원 과반 상태"
트럼프 하원의장에 분노의 편지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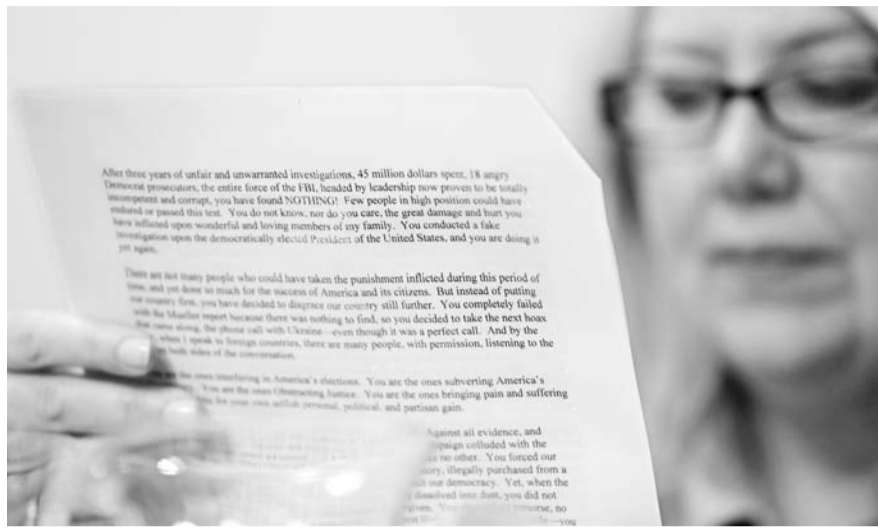
공화당과 민주당은 표결 일정을 하루 앞둔 17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일 하원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2개 탄핵 소추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함으로써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엄숙한 권한 중 하나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국내의 모든 적으로부터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맹세를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모든 하원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촉구하는 등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오후 7시30분 현재 2개의 탄핵 소추안 중 최소한 하나라도 찬성하는 하원 의원이 218명, 반대는 1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5명은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공석 4명을 제외한 재석 431명 중 의결 정족수인 216명을 이미 넘어선 상태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쿠



하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데비 레스코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앞으로 보낸 편지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데타 기도'로 몰아세우며 미국 국민이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의 왜곡과 권한 남용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는 처음부터 완전한 엉터리였다"고 한 뒤 "탄핵에 대한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부드럽게 표현해서 '0'만큼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편지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핵심은 봤다. 정말로 역겹다"고 쓰아붙였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 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치도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하원 운영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범죄와 비행에 대한 탄핵'을 안건으로 올려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반 토론과 표결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하원 상임위 차원에서 개최된 마지막 절차였다.

운영위 회의에는 운영위 소속 의원은 물론 탄핵소추안 작성을 담당할 법사위의 제이미 라스킨 민주당 의원과 더그 폴린스 공화당 의원도 참석해 설전을 벌였다.

라스킨 의원은 "대통령의 계속된 행동은 미국 민주주의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우리는 이런 위법행위가 지나가도록 허용할 수 없다. 이는 우리 헌법과 외교정책, 국가안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통과시 탄핵 심판의 바통을 이어받는 상원의 미치 매킨 공화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 제한한 내용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장외 신경전에 가세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매킨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매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상원의 새로운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매킨 원내대표는 "우리 기관에 악몽 같은 전례를 남길 수 있다"며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 원내대표는 분명히 상원이 민주당 하원의 숙제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나는 내가 제안한 증인이 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단 한 번의 논거도 듣지 못했다"며 "대부분 재판과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에서도 증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매킨 원내대표는 상원의 탄핵 심판이 개시되기도 않았는데 증인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 시기상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란표 가능성이 있지만 부결 전망이 일반적이다. /연합뉴스

11월 일자동차 한국수출 88.5% 급감

'노재팬' 여파...식료품은 반토막, 감소폭은 둔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여파로 불거진 '노재팬'의 영향으로 지난달 일본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이 18일 발표한 11월 무역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3천896억엔(약 4조1천426억원)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액은 15억6천200만엔(약 16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8.5%나 급감했다. 자동차 수출 감소폭은 10월 70.7% 줄어든 것에 비해 커졌다.

자동차 중에서도 승용차는 89.1% 급감한 데 비해 버스와 트럭은 61.5% 감소했다.

맥주가 포함된 식료품 수출액은 29억800만엔(약 309억원)으로 전년 대비 48.7% 감소했다. 식료품 수출 감소세는 10월 58.1% 급감한 것에 비해서는 둔화했다.

일본의 월별 한국 수출액을 보면 6월 4천611억엔, 7월 4천360억엔, 8월 4천226억엔, 9월 4천27억엔, 10월 3천818억엔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달 5개월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년 동기 대비로 봐도 10월 23.1% 감소와 비교해 지난달에는 17% 줄어드는데 그쳐 감소세가 둔화했다.

한편, 일본의 11월 무역수지는 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인니, 성탄절 교회·성당 등 군경 20만명 배치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 우려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요청

인도네시아 정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군경 약 20만명을 교회와 성당,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주요 관광지 등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수도 자카르타에 1만명을 배치하고,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뉴기니섬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에도 많은 인력을 투입한다. 자카르타 경찰청 대변인 아르그 유희노도 "정보에 따르면 잠재적 위협이 있다"며 "테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간 콤포스 등이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천만명 가운데

87%가 이슬람 신자(무슬림)라서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다.

인도네시아는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됐고 이슬람국가(IS) 추종 세력이 반복해서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지난 10월 미군 특수부대 급습으로 자폭한 뒤 IS 근거지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11월 13일에는 수마트라섬 북부 메단 경찰서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테러범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인도네시아 경찰 대테러 특수부대인 '88 과격대'는 이날 6~7일 파푸아 자야푸라에서 테러 용의자 8명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5명 살해 태국 연쇄살인범 가석방후 또 살인

"범 물러 터져"...태국 전역 시골

태국에서 5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 가석방된 지 약 반 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르면서 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카오스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연쇄살인범으로 악명을 떨친 솃 뷁뽀양은 지난 15일 콘깬주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솃 뷁뽀양은 통해 알게 된 이 여성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여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솃 뷁뽀양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라오스 국경 쪽으로 도주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솃 뷁뽀양에 5만 바트(약 200만원)의 포상금도 내걸었다.

솃 뷁뽀양은 지난 2005년 무려 5명의 여성을 살해해 태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그해 1월 여성 한 명을 살해한 뒤 6월에 4명의 여성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는 재판에서 애초 사형이 선고됐고, 약 14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출해 5월 국왕 대관식에 맞춰 단행된 사면 당시에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이 때문에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태국 사법 체계가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 "두 번째 살인 사건을 저지른 뒤에는 사형을 당했어야만 했다. 이 나라의 몰러터진 법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니코틴 95% 줄인 담배 출시

미국 식품의약청 판매 승인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니코틴 함량을 95%까지 대폭 줄인 담배의 판매를 승인했다.

FDA는 식물 생명공학 기업인 '22세기 그룹'(22nd Century Group)이 만든 초저 니코틴 담배 '문라이트'(Moonlight) 2종(일반형과 멘솔형)의 판매를 허가했다고 AP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미국에서 제조되는 일반 담배는 니코틴 함량이 개비 당 10~14mg인데 비해 '문라이트'는 0.2~0.7mg이다.

이 초저 니코틴 담배는 흡연 중독자들의 니코틴 의존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FDA의 미치 젤러 담배 제품 실장은 밝혔다.

FDA는 그러나 이 초저 니코틴을 줄인 담배가 안전하다거나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연금개편 반대 시위 17일(현지시간) 프랑스 렌에서 열린 연금개편 반대 집회에서 시위대가 '포인트제 연금 = 끝없는 노동'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퇴직연금 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제3차 총파업 대회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 고금리 대출을 3%~8.15% 대폭 낮춰주는 815 대출
- 다주택 보유에 가중세 2.4%~4.4%로 채무 과다 완화가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대출 특별 (신용 한도)
- 지역별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특별 지원(신협)
- 3~4억 등 고금리 대출이기에 평생 무이자 대출
- 3~4억 이상 45세 이상 서민은 100% 무이자 대출
- 50세 이상 조합원 특혜대출(신협)이후 신용 한도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